

배포 2026. 7. 30.(목)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7. 31.(금) 06:00
(지 면) 2026. 7. 31.(금) 석간

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

- 2026년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4개교(수도권2개교, 비수도권2개교) 예비 선정
- 최대 5년간, 매년 5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①대학 내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 ②신진 연구인력 중심의 혁신적 기초과학 거대 융복합 연구지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7월 31일(금)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지원 대학 예비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 **G-LAMP** : Global-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올해 예비 선정된 4개 대학과 각각의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다.

< 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예비 선정 결과 >

구분	비수도권		수도권	
선정대학	제주대	영남대	세종대	중앙대
연구분야	지구·해양·기후	전기·전자·통신	원자과학	전기·전자·통신

신규 선정 대학은 최대 5년*(3년+2년) 간 사업단별 연 5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아, ①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 강화, ②기초과학·공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 및 ③신진 교원에 대한 연구지원과 박사후연구원 채용을 통한 미래 연구자 육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지원 3년 차에 사업 추진 상황, 성과 달성 수준 등에 대한 단계평가를 거쳐 추가 2년 지원 여부 및 지원 예산 규모 등을 결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예비 선정 통보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선정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8월에는 선정 대학과 주요 협약 사항* 이행 계획 등을 점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사업 기본계획, 신청요강 등을 통해 기 공고된 요건 사항 준수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은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소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 4년 차를 맞이하기까지,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지원과 더불어 박사 후연구원 및 신진 교원 등 차세대 연구자들이 핵심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데 집중적인 지원을 계속해 왔다.

2023년 8개교를 시작으로 2024년 6개교, 2025년 6개교 선정을 거쳐 올해 4개교 선발을 통해 총 24개 규모의 대학을 지원하며, 사업의 외연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제주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이 기초과학 연구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내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향후 교육부는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의 후속 지원을 위한 사업 개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간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현장의 참여 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사업의 역할 확장을 비롯하여, 대학이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식과 세부 방법 등을 현장 연구자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예비 선정 결과는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G-LAMP) 사업이 응용 분야까지 확장되어, 그 외연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신진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연구소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6년 예비 선정 대학 주요 연구 추진계획
2.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선정 대학 현황('23~'25년)
3. 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기본방향

담당 부서	대학정책관실 학술연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채홍준 (044-203-6870)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김진홍 (044-203-6867) 현주훈 (044-203-6868)
담당 기관	한국연구재단 학술기획팀	책임자	팀 장	송병찬 (042-869-6370)
		담당자	팀 원	홍지영 (042-869-6377)

1. 대학별 개요

유형	지역	대학명	사업단장	중심분야 (관련분야)	핵심내용
1 유형	수도권	세종대	이기학 (기획처장)	물리학 (광학/원자분자물리-양자정보)	▸ 양자소재·양자정보·양자 컴퓨팅·양자센싱·AI 융합
	지역	제주대	김기영 (산학협력단장)	지구과학 (해양/극지과학-융합해양과학)	▸ 초열대기후·해양·생태융합 연구, NAVI효과연구소
2 유형	수도권	중앙대	고중혁 (연구부총장)	전기/전자 기반 융합 (컴퓨터NW, 나노융복합 소재 등)	▸ 초저전력 인간모사 전자 전기통신 A-HUMAN 연구소
	지역	영남대	정진영 (공과대학 교수)	전기/전자 기반 융합 (AI, 빅데이터통계, 생체계측 등)	▸ 전자·바이오융합헬스케어 (체내삽입형·웨어러블·AI예측)

2. 대학별 내용 [요약]

1) 세종대 : 양자소재 및 양자-AI 융합원천기술

- (과제목표) 양자소재·현상의 근본원리를 규명하고 양자컴퓨팅·양자센싱·양자정보처리·양자AI 융합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적 수준의 양자융합 연구거점 구축
- (연구내용) 양자소재·양자정보·양자컴퓨팅·양자센싱·AI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양자 데이터의 생성부터 활용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연구플랫폼 구축
- (기대효과) 양자-AI 융합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신산업 창출과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에 기여, 통합 연구 플랫폼 구축 및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제주대 : 초열대 기후·해양·생태융합연구

- (과제목표) 기후위기 최전선인 제주를 자연실험실로 활용해 지구·해양·기후분야 글로벌 초열대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초열대 나비 (NAVI) 효과 연구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 확립

- **(연구내용)** 다매체 환경(해양·대기·지하수·토양)의 관측·예측연구, 생태계 구조 변동과 생물 반응 기전의 연계규명, 14개 세부 과제 데이터 통합 및 AX 기반 예측·검증 연구 수행
- **(기대효과)** 제주 기반 국제 연구 협력 허브 위상 강화, 통합 데이터 기반 초열대화 대응 체계 구축, 지역 기후 적응 정책 지원, 포닥·신진교원 중심 차세대 연구자 양성

3) 영남대 : 전자-바이오융합 헬스케어 플랫폼

- **(과제목표)** 초고령화·의료소외 문제에 대응해 공업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능형AI기반 전자-바이오융합 헬스케어플랫폼」을 구축하고, LAMP 전임교원 12명·포닥 12명 양성
- **(연구내용)**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 시스템 기반 상시 생체 신호 모니터링, 웨어러블 보행 보조 액추에이션시스템, 멀티 모달 빅데이터 기반AI 질환 예측·라이프케어 등 3개 총괄·12개 세부과제
- **(기대효과)** JCR 상위10% 논문·특허 등 학술성과 창출, 영남대 병원·지역 기업 기술이전 및 SaMD 상용화, 석·박사인력양성, 대구·경북 지역 의료 소외 문제 해소 기여

4) 중앙대 : 초저전력 인간 모사 전자전기통신

- **(과제목표)** 「20W Intelligence, Beyond Human Limits」 비전 아래, 인간신경계·뇌·근육의초저전력·고효율 원리를 전기·전자·통신기초 연구로 확장하는 A-HUMAN 연구소를 구축·운영.
- **(연구내용)** Neural-Brain-Muscle-Human 4대 연구축 공동연구, 학내 연구소 통합관리·차등 지원 체계 제도화, LAMP 전임교원·포닥 육성, 반도체 공정장비·GPU서버 등 연구 인프라 통합 운영
- **(기대효과)** 초저전력 인간 모사 분야 기초 원천 기술 확보 및 연구 브랜드 확립, 연구소 중심 거버넌스 고도화, AI반도체·로봇·헬스케어·국방 응용 분야 확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자립형 연구 거점 구축

구분	비수도권 (15)	수도권 (9)
2023년	경상국립대(분자수준 과학) 강원대(DNA·RNA 분자생물학) 경북대(진화·종의 다양성) 국립부경대(지구·해양·대기과학) 부산대(지구·해양·대기과학) 조선대(뇌·신경과학·기초의학)	서울대(수리·통계·인공지능) 아주대(물질·에너지)
2024년	전남대(물질·에너지) 전북대(물질·에너지) 충북대(물질·에너지)	서강대(나노과학) 국립창원대(나노과학) 연세대(물질·에너지)
2025년	동아대(원자과학) 순천향대(DNA·RNA 분자생물학) 충남대(천체·입자·우주)	경희대(천체·입자·우주) 숭실대(수리·통계·인공지능) 이화여대(수리·통계·인공지능)
2026년 예비선정	제주대(지구·해양·기후) 영남대(전기·전자·통신)	세종대(원자과학) 중앙대(전기·전자·통신)
합계(총 24교)	15개교	9개교

비전

대학, 새로운 지식 창출의 중심지

추진
목표

- ♦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발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대학
- ♦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찾아오는 대학

추진
과제

① 연구소 관리 체계 마련 및 지원 강화

- ♦ 자체 연구소 개편 및 조정을 통한 연구소의 적정 규모화
- ♦ 연구소의 개별 생존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의 육성 지원

+

② 중점 테마연구소의 혁신적 운영

- ♦ 신진 연구인력(신진 교원, 박사후연구원) 중심 운영
- ♦ 다양한 전공의 공동연구와 새로운 지식 창출 지원
- ♦ 국내 및 글로벌 협력 연구의 '허브'로 자리매김
- ♦ 他 지역 인력을 유인하는 매력적인 대학의 연구브랜드로 육성

↑

기초과학 분야 대학 연구 생태계 활성화

(안정적인 예산 지원 +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

기대
효과

- ♦ 핵심 인력 양성
 - 기초과학 고급인력 (신진교원, 포닥, 전문연구요원 등) 육성 1,000명 이상
※ 신진교원 200명, 포닥 연 100명, 전문연 연 60명 등
 - LAMP 대학에의 他 대학 포닥 유입·순환 2배 증가 ↑
- ♦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 「중점테마연구소」의 국제적 브랜드 연구소로 성장
 - NATURE, CELL, SCIENCE 급 저널 (JCR 상위 1% 이내) 게재 건수 20건 이상
 - 대학 간 성과교류회(매년), 관련 대표학회(최초 3년 이내) 발표